

# QT 하십니까

08/03/2025

지난 목요일(7/31) 폭우가 쏟아져 뉴욕시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 성도들의 가정에 피해가 없었기를 바랍니다. 그런 우중에도 지난 주간 며칠에 걸쳐 예배당 앞쪽 잔디 공사가 있었습니다. 땅 밑에 공사 잔여물이 있어서 땅이 좋지 않고, 조경 관리도 쉽지 않아서 고심하던 중에 한 가정에서 지정헌금을 해주셔서 인조잔디 공사를 잘 마감했습니다. 성도들이 오늘 아침 도착하셔서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시며 상쾌하셨으리라 기대합니다. 인조잔디 설치와 함께 조형물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더욱 보기가 좋습니다. 이렇게 우리 교회는 또 한 번의 새로움을 맛보게 되었습니다.

그런데 외적인 새로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적인 새로움입니다. 우리 교회는 주일 2부예배 첫 시간에 교인들이 순서를 맡아서 QT나눔을 합니다. 2017년 2월 12일부터 시작했으니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. 2017년 2월 12일 주일 칼럼의 제목이 이러했습니다. <QT 하십니까> 이 칼럼의 일부를 아래에 인용해 보겠습니다.

**"큐티 하십니까" 이 말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사말이 될 것입니다. 오늘부터 2부예배 시간에 큐티나눔을 할 것입니다... 매주 순서를 정해서 맡은 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이것을 한정된 몇몇 사람들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교인이 가나다 순서로 하게 될 날이 속히 오기를 기**

**대 합니다... "새로운삶" 공부 시간에도 QT를 안내하며 권하고 있었습니  
다. 그러나 정작 큐티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자술에 맡겼습니다. 이제 앞  
으로는 그것을 바꾸어 강권해서 큐티를 하도록 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것  
입니다... 왜 이렇게 큐티를 강조하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  
습니다.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. 사람이 변화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  
해서는 오직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. 믿음이 성장하지 않  
는 이유, 삶이 성숙하지 않는 이유, 뚜렷한 사명과 목적을 깨닫거나 발견  
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  
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...**

큐티가 신앙의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 기본기가 다져지는 것  
은 사실입니다. 그래서 무려 8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직도  
전교인이 모두 참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을  
그 시작으로 하고자 합니다. 요즘 자신을 순서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는  
분들이 종종 있습니다. 하루 전에 준비를 못했거나 혹은 사정상 제외시  
켜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. 사정을 봐주다 보니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  
다. 이제 사정 봐드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신앙의 훈련으  
로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2026년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가  
나다 순으로 순서에 따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그러나 고령으로 건  
강상의 이유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. 말씀 가운데  
거하시며 내적인 새로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.